

“다 알지만 귀찮아서……”

정 부 진

한일사료(주) 마케팅부 차장

우리나라의 낙농업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성장해 왔다.

1962년 『낙농업 진흥계획』 수립을 계기로 본격 출발한 한국낙농은 사육호수에서 1965년에 약 1천호가 1990년에는 3만3천호로, 사육두수는 같은 시기에 약 7천두가 5십만두로 늘어나는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화려한 양적 성장 뒤에는 우리의 낙농발전에 장애가 되는 엄청난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머리는 있으나 손발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 거기에다 그동안 여러 사료회사와 동물약품 메이커에서 세미나등 각종 모임을 통해 소의 사양관리나 질병에 대해서 무수히 교육해 왔고 극소수이긴 하지만 낙농선진국을 견학한 낙농가도 있다.

또 세계를 하나로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메스컴은 하루가 멀다하고 외국의 낙농현장을 우리 안방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는 것도 많다.

소에게는 조사료를 많이 주어야 하고, 건유기에 착유사료를 급여하면 안되고, 소는 더위를 싫어하

고, 근친교배가 되면 유전능력이 저하되고 등 등.

그러나 목장에 가보면 이런 사항들을 실제로 실천하는 농장은 드물다.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합니까?” “건유기에 건유우용사료나 큰송아지사료를 사용합니까?” “여름철에는 우사의 창문을 전부 떼어 놓습니까?” “수정기록은 갖고 있습니까?” 이와같은 물음에 담은 한결같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귀찮아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중대중해도 먹고 살만하다는 것일까!

1년 365일을 새벽에 일어나 젖을 짜야하고 집안의 주요 대소사에도 마음놓고 갈 수 없는 고단함 때문이겠지.

그러나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실행에 옮긴다면 수익을 높일 수 있을텐데……

아무리 좋은 이론도 그것을 손과 발로 실천하지 않으면 알지 못함과 다를바가 없는 것이다.

기록을 철저히 하라

기록은 바로 수익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소개제 마다 사료급여, 질병, 번식, 우유생산등에 대해 철저히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해 나간다면 수익

을 높일 수 있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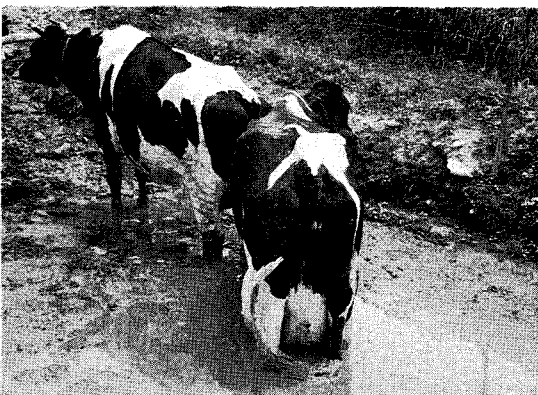
그러나 기록하는 낙농인은 극히 드물다. 1번소는 초산 산유피크가 30kg이었는데 이번에는 몇kg이 될것인가? 2번소는 지난번 송아지 낳을때 난산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이번 분만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할까? 3번소는 조모·조부·어미·애비소가 아무개이니 정액을 잘 골라야지.

작년 여름 유지율이 3.0%까지 떨어졌는데 올해에는 3.4%이상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까?

이와같은 물음과 해답을 찾는 일이 우리의 모든 목장에서 반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기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대중대중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료를 판매하는 사료회사마다 수많은 기록부를 만들어 목장에 공급해 왔다. 개체기록부, 사양관리기록부, 번식에 대한 기록부까지 그양은 어렵잡아도 전국의 목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의 5배이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목장에서는 귀찮고 처치곤란한 존재로 구석구석에 버려져 있는 실정이다. 하루에 30분만 할애해서 기록하면 될텐데. 그렇게 하면 현재의 수익



소를 자기자식같이 사랑하라 또 소와 유방을 깨끗히 해야한다. 사진은 배설물에 뒷다리와 유방이 빠져 있는 모습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보다 10%이상은 향상될텐데. 이제부터라도 낙농을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비용은 10% 절감하고 수익은 10% 늘리겠다는 각오로 낙농을 해야한다. 그것은 기록으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소를 사랑하라

젖소는 우리 낙농인에게 바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가축이다.

6년, 7년, 8년, 길면 10년, 15년을 주인과 함께 하면서 돈을 벌어준다. 이런 소를 대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애지중지 키우면 소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에 안락함을 느끼고 주인이 유방을 만지며 젖을 짜주면 편안함에 젖을 것이다. 이렇게 될때 소는 더욱 많은 우유를 만들어 낼 것이고 요즘 돈뎌치가 된 송아지도 평평 낳아줄 것이다.

그러나 농장에 가면 뽕까지 빠지는 운동장에 서있는 소, 비쩍 말라 미근과 요각이 붙쌍 사납게 불거진 소, 유방이 온통 분뇨로 더러워진 소들을 발견하게 된다.

정부의 낙농에 대한 무관심 만큼이나 낙농인들의 소에 대한 대접의 소홀함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겨울철 저녁 무렵 우사에 들어가 보자. 창문은 비닐로 밀봉되어 있고 출입문도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굳게 닫혀져 있다. 따라서 숨을 제대로 들이 마실 수가 없는 실정이다. 만약 주인이 그 우사에서 하룻밤을 소와 함께 자면 아마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다.

우리나라 소들이 주인으로 부터 이러한 푸대접을 받고 있다. 소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소의 생리 특성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고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 대중대중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손발을 바쁘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 기록을 철저히 하지 않는 사람, 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낙농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내 가족같이 보살피면 순진한 소는 꼭 그만큼 주인에게 보답할 것이다.